

# ‘소비 위축’ 광주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부진 ‘여전’

**광주상의, 4분기 경기전망지수  
고물가로 9분기 연속 기준치 ↓  
인건비·물류비 부담 ‘경영 애로’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 절실’**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체감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지수는 지난 분기(87)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4분기는 야외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는 데다, 고물가·고금리 기조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체감경기가 9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다음 분기 경영활동 시 우려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업체가 ‘소비심리 회복 지연(32.0%)’을 꼽았으며,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부담(25.6%)’,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채부담 가중(19.1%)’, ‘시장경쟁 심화(10.6%)’, ‘중국 전자상거래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8.5%)’, ‘상품 매입가 상승(2.1%)’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백화점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편의점·슈퍼마켓은 모두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75→100)는 고물가에 따른 가성비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체감경기가 전분기 대비 25p 상승하였으나, 인구구조 변화 및 소비 채널 다양화에 따른 근거리, 소량소비 선호도 증가 등 업황 부진 요인들로 인해 기준치(100)를 상회하지는 못했다.

백화점(100→100)은 프리미엄 리빙, 가전 등 고가품 구매심리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위축과 엔저 영향에 따른 명품수요 이탈 등으로 체감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의점(94→76)은 출점 경쟁 심화와 더불어 쿠팡·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및 중국 유통채널 확산 등으로, 슈퍼마켓(82→73) 역시 동절기 진입에 따른 계절적 영향 및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이커머스 시장 성장 등으로 경영환경이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들의 61.7%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6.2%,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1%를 차지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원인으로 ‘판매자 연쇄도산 우려(41.4%)’와 ‘소비자 피해 확대(41.4%)’를 가장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쇼핑 신뢰 하락(27.6%)’, ‘온라인쇼핑 양극화(17.2%)’, ‘중소온라인몰 폐업 초래 우려(17.2%)’, ‘전자결제대행사 등 금융 관련 피해 초래(6.9%)’ 등의 부정적 영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티몬·위메프사태가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소매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보통이다(31.8%)’, ‘그렇지 않다(12.8%)’는 응

답이 뒤를 이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의 플랫폼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70.2%가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17.0%)’, ‘11번가, G마켓 등 다른 국내 오픈마켓(2.1%)’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경영비용 부담 및 업체 간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업체들이 급변하는 영업환경 속에서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중소조선연구원, ‘레저선박용 선외기 관리 교육’

22~23일...참가자 모집

중소조선연구원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레저선박용 선외기 관리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선외기는 엔진, 프로펠러, 방향타가 하나로 결합된 소형 보트 추진기로, 설치와 유지 관리가 용이해 레저보트는 물론 어선과 작업선에 널리 사용된다. 최근 5~7m급 개인용 레저보트의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선외기 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해양레저기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선외기와 같은 기관 손상이 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레저기구는 일반 선박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승선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단순한 기관 손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선외기 엔진 관리 및 정비 능력은 해양 레저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강좌는 엔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수업과 함께 분해 및 조립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레저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창업 희망자,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소조선연구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 참가 인원을 15명 내외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근로자, 취업 희망자, 창업자, 일반인 순으로 선발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 신청은 중소조선연구원 마린교육센터(mtc.rims.re.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좌 담당자(051-714-6129)에게 문의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 삼성전자, 방콕서 ‘비스포크 AI 콤보’ 테크세미나

연내 동남아 8개국서 판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태국 방콕에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테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주요 매체 기자와 인플루언서 120여명이 참석해 비스포크 AI 콤보의 스마트한 세탁 혁신을 경험했다.

참석자들은 △성능과 에너지 절감 △편리성 △연결 경험으로 나는 3개 존에서 비스포크 AI 콤보의 히트 펌프 기술을 비롯해 차별화된 강점을 체험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이 끝난 후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일체형 제품이다.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단독 건조기 수준의 우수한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

비스포크 AI 콤보에 탑재된 7형 와이드 LCD 스크린 ‘AI홈’은 터치 방식을 적용



삼성전자가 지난 8일 태국 방콕에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테크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제공

해 사용자 경험을 직관적으로 향상했다. 또 ‘스마트싱스’ 기반으로 기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국내와 북미

시장에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한 데 이어, 연내 동남아 8개국을 포함해 중남미와 유럽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 광주 ‘인쇄 장인·인쇄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024 광주 인쇄 장인 및 인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산하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인쇄 소공인 역량 강화, 광주 서남동 일대 인쇄 집적지 활력 증진을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인쇄장인 △인쇄 아이디어 등 2개 분야다. 인쇄장인 분야는 숙련된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업력 30년 이상, 광주지역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쇄장인을 발굴한다.

인쇄 아이디어 공모는 자유부문(인쇄·출판 관련 홍보용 인쇄·출판물 및 상품 분야)과 지정부문(광주 동구 서남동 인쇄 집적지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캘린더 등 인쇄물)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인쇄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대학생도 인쇄 아이디어 공모에 출품할 수 있도록 했다. 나다운 기자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 소재 제조·인쇄 및 연관업 소공인과 광주지역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주형 인쇄물 제작 통합 플랫폼 ‘활자활짝’ 누리집(www.hjhjj.co.kr)에서 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23일까지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인쇄지원센터측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쇄장인 1명(시상금 200만원)과 인쇄 아이디어 10점(대상 150만원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나다운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쟁의 행위’ 가결

사측 ‘파업 목표로 한 해사 행위’

임금 협상 등을 벌이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의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9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노조원 222명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20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90명(85.97%)이 찬성했다.

노조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함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부결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노조와 사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임단협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가 가결돼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사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결정되면 부분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이번 쟁의행위 가결에 대해 “단 한 차례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노동쟁의 조정 기간에 찬반투표를 한 것은 파업을 목표로 한 해사 행위”라며 “노동쟁의는 교섭이 우선되어야 성립되고, 결정 이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돼야 맞지만, 노동조합은 회사와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전남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jnilbo.com